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산업현황 조사 및 선교적 조망

-호치민시 I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SFR(Southeast-Asia Field Resesrch) 14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SFR(Southeast-Asia Field Resesrch) 14기 훈련팀에서 2007년12월27일 ~ 2008년1월1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내의 IT관련 기업들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I. 조사설계

1. 조사의 제목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산업현황 조사 및 선교적 조망 - 호치민시 IT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2. 조사의 배경 및 중요성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최근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지리적으로는 북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서북으로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동쪽과 남서쪽은 남 중국 해와 태국 만에 접해있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태국과 함께 영향력이 큰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웃한 같은 공산권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에 미치는 베트남의 영향은 아주 크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국가이다. 2006년 WTO가입 이후 헌법 상으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전도활동은 금하고 있다. 사실상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 대도시에서는 전도활동이 자유롭지만, 도시를 넘어가면, 특별히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전도활동을 금하고 있다. 소수민족에게 기독교 사상이 전해지면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고, 민족 스스로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선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베트남의 경제는 현재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86년 12월 공산당의 제 6회 대회에서 채택된 베트남 판 페레스트로이카² 라고 불리는 '도이머이(Doi Moi) 정책'³과 함께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급격한 경제 성장을

² 1985년 4월에 실시된 소련의 사회주의 개혁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말로 구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 사회주의의 개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붕괴를 촉발시킨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³ '쇄신(刷新)', '개혁(改革)' 또는 '새롭게 변화한다'는 의미

이루고 있다. 최근 3년 연속 6~7%로 아시아 2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에는 현재 외국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태로, 비즈니스 선교의 필요와 함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특별히 베트남의 이러한 경제 성장은 베트남 제1의 경제 도시인 호치민 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호치민 시는 베트남을 북, 중, 남의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베트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도시이며, 남부 지역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이다. 그리고 호치민 시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와 대외무역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감시가 타 지역에 비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개척과 선교활동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조사 팀은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의 전략적 관문으로 여겨 지는 베트남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고 현 베트남의 정세와 경제에 가장 적합한 선교 방법이 비즈니스 선교라 판단하였다. 비즈니스 선교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함께 그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선교는 기존의 목회자 중심의 복음 전파가 갖는 지리적, 문화적 한계를 보완 해주고 복음의 전파와 함께 접근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현 베트남은 개혁 개방 이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산업 중 IT부분의 산업은 특히나 괄목적인 발전과 성장세를 보인다. IT산업의 경우는 여타 산업과 비교하여 소자본으로도 접근 가능한 사업이며, 그 분야가 방대하여 비즈니스 선교에 효율적인 산업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조사 팀은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호치민시의 IT산업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즈니스 선교의 효율적 접근을 위한 기초 정보와 비즈니스 선교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조사의 목적

- 1) 베트남 IT산업의 전반적 조사를 통해 베트남 내 산업 및 경제의 동향, 특히 IT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한다.

- 2) 베트남 내 IT 경제의 향방을 파악하고, 베트남 내 IT 기업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다.
- 3) IT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베트남 내 외국인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원만한 기업활동과 선교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선교를 전망한다.

4. 조사지역

베트남 호치민 직할시

5. 조사대상

베트남 호치민 시 내의 IT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기업의 객관적 사실을 제공 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현직 종사자들을 직접적인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6. 현장조사기간: 2007년 12월 27일 ~ 2008년 1월 17일⁴

7. 조사인원

-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베트남 호치민 시 현지 조사팀⁵
7명

⁴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7년 3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⁵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8개 지역조사팀 중 SFR(South-east Asi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미션팀(Mission Team)과 전문가팀(Expert Team)이 있다.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허준석	기계제어공학부(02)	디렉터, 문서자료부원
2	강봉수	기계제어공학부(06)	문서자료부장
3	윤선주	생명식품과학부(03)	예배부장
4	류용호	GLS(07)	미디어부장
5	최용극	경영경제학부(05)	미디어부원
6	김범준	GLS(07)	총무부장
7	박은수	GLS(07)	총무부원

2) 통역자 4명

	이름	소속	역할
1	윤천수	고려 교단	현지 코디네이터
2	이경	IDT CO., LTD.	현지 코디네이터
3	오기쁨	서울대 법학과(08)	현지가이드
4	곽민우	사이공 한인 연합 교회	현지가이드

8. 조사방법

1) 사전조사

부썬투이,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서울: 대원사: 2002)

베트남플라자편집부, 「이것이 베트남이다」, (서울: 와이미디어: 2007)

「종족과 도시 선교저널 제 12호」, (서울: 종족과 도시 선교연구소: 2002)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2권 2호」, (포항: 한동대국제지역연구소: 2007)

2) 현장조사

(1) 관찰 조사

(2) 인터뷰

	이름	직책	소속
1	황병락	President	IDT CO.,LTD.
2	김태복	Director	IDT CO.,LTD.
3	오덕	General director	Caigi.com
4	신원석	Business planning team manager	Caigi.com
5	반용호	Director	Losco
6	김순옥	Executive manager	KOCHAM
7	한상권	Manager	KOTRA 호치민 무역관
8	한윤준	Attorney at Law, Member of New York Bar	법무법인 LOGOS
9	정기옥	IT specialist, 매일경제 Ubiquitous Computing Journalist, Duzon IT Group UCL Chief Researcher	KOICA
1 0	Phuong Tran	Office manager	EverEtech
1 1	이삼한	회계법인 대표, AICPA, VACPA	S&S Auditing & Consulting CO.,LTD.
1 2	최광혁	Deputy General Director	E-LAND Vietnam
1 3	안두환	CEO	대남 투자&컨설팅
1 4	Edward Hwang	Manager	VinaGame
1 5	유창국	경남대 문화 콘텐츠 학부장	경남대
1 6	임채석	Candidate of master degre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3) 문헌조사

「베트남 투데이 통권 39호」, (호치민: 베트남 투데이, 2007)

「베트남 투데이 통권 41호」, (호치민: 베트남 투데이, 2008)

「베트남 투자 핵심 가이드」, (서울: KOTRA, 2007)

「베트남 투자법령집」, (호치민: KOTRA 호치민 무역관, 2006)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 「코참 조찬 포럼 강의자료 모음집」,
(호치민: KOCHAM, 2005)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 「코참 조찬 포럼 강의자료 모음집」,
(호치민: KOCHAM, 2006)

II. 들어가는 말

갤럽국제협회(GIA)가 선정한 “미래의 가장 희망적인 국가” “브릭스(BRICS)⁶를 대체할 신천지 시장” “제2의 중국” “아시아의 신흥 시장” “아시아의 별” 이 모두가 베트남을 대신하는 말이다. 그만큼 베트남은 실업률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있으며 고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이다. 베트남은 1858년부터 약 100여 년 간의 프랑스령 식민시대를 거쳤다. 1954년에는 북베트남의 공산당 정권이 정부수립을 공포하고 북베트남에서 디엔비엔푸 전투를 기점으로 프랑스 식민세력을 축출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의 공산정권, 남쪽의 자유민주정권으로 갈라졌다. 남과 북으로의 분단은 남과 북 사이의 20여 년에 걸친 긴 전쟁을 가져왔다. 통일 전쟁 중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1961년 참전하였으나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1975년 사이공을 함락시킴에 따라 전쟁은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나고 공산화 통일을 이루었다.

장기간의 전쟁 이후 베트남은 전후의 황폐함, 사회문제, 대규모 난민의 발생, 캄보디아와의 분쟁 그리고 자연재해 등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의 고립정책과 무역금지 정책이 베트남의 경제 사정에 큰 어려움이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6년에 모든 부문에 걸친 개혁 정책안인 ‘도이 머이(Doi Moi)’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의 경제는 개방되었으며 시장경제체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점차 무역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1년에서 1998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에 달했으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7~8%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아시아 경제 성장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2010년까지 경제

⁶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Brazil)•러시아(Russia)•인도(India)•중국(China) 등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 경제용어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 무렵이면 이들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릭스는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미루어 볼 때, 4개국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뜻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이다.

성장률을 8% 이상의 목표를 잡을 정도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⁷

베트남 IT 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출발했고, 그 시장 규모도 작은 편이다. 하지만 풍부한 인구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정책으로 인해 잠재적인 시장 규모가 매우 크다. 인터넷 서비스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3년 만에 10만 명 이용자 돌파, 휴대 전화 가입자가 5년 만에 8배가 넘게 증가할 정도로 그 성장세가 급격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발달된 분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야에 따른 베트남 IT 및 관련 산업들을 조사하여 베트남에서의 IT 산업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의 가능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⁷ 인터넷 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베트남’, ‘도이머이 개혁정책’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Ⅲ. 베트남 개관

1. 일반개요

1)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Cong Hoa Xa Hoi Chu Nghia Viet Nam])

2) 수도

하노이 (Hanoi)

3) 위치⁸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부에 동해안을 따라 가늘고 긴 S자형, (동경 102°09~109°30, 북위 8°10~23°24에 위치 함) 1,600Km이상 뻗어있다. 북으로는 중국과 국경이 접해 있으며 서북으로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동쪽과 남서쪽은 남 중국 해와 태국 만에 접해있다.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 늦다.

4) 면적⁹



⁸ 주한베트남대사관, 2006년 3월 13일 일차 방문 자료

⁹ 주한 베トナム 대사관, 2006년 3월 13일 제공 자료

331,690km²로 한반도의 약 1.5배이다. (남한의 3.5배)

5) 기후¹⁰

<그림 III-1> 베트남 지도

북부는 아열대성이고, 남부는 열대성 기후이며, 평균기온은 24.1℃ (북부: 23.2℃ / 중부: 24.1℃ / 남부: 27.1℃), 습도는 월 평균 83% 평균 강수량은 2,151mm로 한국보다 2.4배 높다. 남과 북의 차이가 심하며 평야지대와 고원지대의 기후도 매우 다르다. 북부는 춘하추동이 비교적 뚜렷한데, 겨울에는 10℃~16℃, 여름에는 37℃~38℃까지 평균 강수량은 1,678mm이다. 중부는 8월~1월까지의 우기에는 꽤 많은 비가 내리고 8월과 9월에는 태풍도 많다. 반대로 5월~8월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지만 찌는 듯한 날씨가 계속된다. 남부와 메콩 델타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26.9℃으로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우기는 5월~10월, 건기는 1월~3월이며, 우기의 강수량은 1,800mm에 달한다.

6) 인구¹¹

전체 인구는 약 8,312만명(2005년 추정)으로 추산되며, 인구밀도는 249명/km²,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96.6으로 여초현상을 보이고 있다. 출생률은 18.6%, 사망률은 5.3%로 가임 여성의 1인당 출산 자녀 수는 2명, 평균수명은 71.3세(2005년)이다. 행정구역은 5개의 특별시와 59개 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도인 하노이에는 약 300만명이, 호치민에 약 573만 명, 하이퐁에 약 177만명, 다낭에 약 76만명 등이 살고 있다.

베트남 인구 구조는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로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 약 4천 3백만에 달해 적어도 향후 20~30년간 경제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노동력의 질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 국민의 74%(약 6천만명)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매우 급속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정치적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으며, 이주하려면 지역 경찰에 등록 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부를 발급 받아야 하고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려면 거주 승인을

¹⁰ 주한 베트남 대사관, 2006년 3월 13일 제공 자료

¹¹ 주한 베트남 대사관, 2006년 3월 13일 제공 자료

받기가 매우 어려워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에는 상당수의 불법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7) 정치

베트남은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공언한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45년에 북베트남이 공산주의 공화국임을 선포하고, 1941년과 1985년 사이에 일본에 대항하여, 그 이후에는 프랑스, 남베트남, 미국, 기타 주변 국가들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 왔다. 북베트남은 마침내 1975년에 남베트남을 1978-85년에 캄보디아를 점령하였다. 베트남의 빈곤과 외교적인 고립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르크스주의 정책은 조금 완화되었고 80년대 후반 경제를 자유화하기 위한 베트남의 시도는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었다.¹²

8) 종교

(1) 개요

철학 및 종교가 베트남인들의 정신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데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로 구분할 수 있다. 유교, 도교, 불교는 중국인 민간신앙 및 베트남인들의 고대 정령 신앙과 융화되어 3개의 종교로 땀짜오를 형성하며, 베트남 불교라고 불린다. 크메르나 참 족이 신봉하는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 이슬람교, 호아하오교, 카오다이교,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

<표 III-1> 베트남 기독교 현황¹³

교단	교회	성인교인	최대치교인
복음교회(CMA)	260	160,000	350,000
미등록 가정교회	253	38,000	95,000
몬테그나드 교회		18,000	60,000
제칠일안식교회	23	4,000	6,670
하나님의 성회	46	2,100	3,000

¹² 세계기도정보, krim.org/ow, (검색일: 2007년 12월)

¹³ 세계기도정보, krim.org/ow, (검색일: 2007년 12월)

기타(5)		11,500	22,140
계(10)	632	233,600	536,810
복음주의자. 인구의 0.78%		225,900	524,000
오순절/카리스마틱 0.18%		48,000	115,000
선교사: 베트남 사역 선교사 19 (1:3,500,000 명). 베트남 파송 선교사 3 (1:180,000 개신교인) 외 3.			
로마 카톨릭 8.9%. 성장을 5.7%.			
카톨릭교회		3,900,000	6,000,000
선교사: 베트남 사역 선교사 1 (1:72,000 명). 베트남 파송 선교사 340 (1973 년 수치).			
유사기독교 0.07%.			
계(8)		22,000	50,000

교의 자유에 대한 법적 인보장은 의미가 없으며

모든 종교적인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실제적인 정책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압력은 계속해서 잔혹해지고 있으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하다. 1991년에 박해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그후로 감소하였다. 무종교/기타 29.8%, 불교 52%, 신흥종교 5.2%, 정령숭배 3%, 회교 0.2%, 기독교 9.8%의 비율을 보인다.

(2) 종교 특징

① 타종교 특징

까오다이교는 카오다이신을 모시는 베트남의 신흥 종교이다. 1926년에 레반치엔(Lê Van Chiên)이 유교적 도덕·불교적 교리·도교적 제식을 융합하여 창시한 것으로, 보편주의와 채식주의를 주창하며 저항적 성격을 지닌다. 일본과 협력해 프랑스에 대항하는 항불 운동을 벌였으며, 남부 떤이닝 (Tay Ninh)성에 교단 본부가 있고, 베트남 국민 중 약 240만 명이 믿고 있으며, 교당 건물에 커다란 눈을 그려 놓아 ‘외눈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호아하오교는 민족주의적 종교로 프랑스 세력을 물리치는데 공헌했으며, 남부지방에 신도가 몰려 있는데 약 130만 명이 믿고 있다.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 지신(地神), 부(富)의 신을 모셔 놓고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는 풍속도 있으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길일을 택해 장례 날짜를 정하기도 한다. 불교는 종파가 수없이 많고 유교, 정령숭배, 마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② 기독교 특징

정부의 간섭과 통제는 자연히 가정이나 지하교회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있으며 정부의 통제 범위에 있는 CMA(복음선교연합회) 교단을 벗어나 독립적 교회를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선교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600여 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으며 약 50여명 이내로 구성되기 때문에 3만여 명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비공인 교회들은 CMA 교회의 갱신을 주장하고 있으며 신앙열정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뜨거운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히 오순절 운동 계통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당하고 있다. 마르크스 정권은 기독교인의 증가 특히 급속히 확산되는 교회 운동 속에서 공산주의의 자리를 기독교에 넘겨주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 1990년 이래로 기독교인의 억압, 고문, 투옥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수부족 사이에 가정교회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상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의 교회는 정부의 탄압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급속한 발전 속에 신학의 부재와 물질 위주의 운영으로 일정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9) 언어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4종의 소수민족 언어를 법률상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어는 중국어의 4성조 보다 많은 6성조로 발음의 장단, 고저에 따라 의미가 다르며,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한자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60% 정도) 한자어의 베트남 식 발음을 터득하면 배우기가 용이하다. 베트남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사용했으나 8,9세기 경에는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해 만든 찌놈(Chu Nom)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 후 17세기 초부터 18세기말까지 전도를 위해 베트남에 온 예수회 소속 사제들이 찌놈으로 된 베트남어를 라틴문자로 옮겨 적기 시작한 것이 베트남 문자의 효시를 이루었다. 1878.4.6 프랑스 식민정부는 현재의 베트남어를 국어로 공인하였고, 1882.1.1부터 각급 학교, 공문서에

적용하는 법령을 공포했으며, 1915년과 1919년에 하노이와 후후에서 과거시험을 폐지하면서 한문과 쓰눔은 쇠퇴하고 현재의 베트남어(문자)가 국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0) 민족성

베트남 인들은 스스로 근면·성실·인내·친절·용감성 등의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외침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국민"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자 하며, 무엇보다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2. 호치민개요

1) 호치민 시의 특징

중국을 모델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최대도시인 호치민 시(구 사이공)를 중국의 상하이와 같은 경제자치지역으로 키우기로 했다. 베트남정부는 최근 처음으로 경제중심지인 호치민 시에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을 설정하는 등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확정 발표했다. 이 법령은 호치민시장이 중앙정부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체 프로젝트를 추진 할 수 있고 토지와 주택의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구 600만 명의 베트남 최대도시 호치민은 베트남 경제의 상징으로 베트남 전체경제력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중심지인 호치민시가 제한적이거나 자치권을 갖고 자체프로젝트를 추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베트남무역협정과 함께 개방과 개혁에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2) 주요 역사적 배경¹⁴

¹⁴ 주한 베트남 대사관, 2006년 3월 13일 제공 자료

약 2세기 전에는 일본과 중국, 서양의 무역상들이 사이공 선착장으로 몰려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베트남의 교역활동의 중심지로써 '동양의 진주'라 불렸다. 또한 과거 사이공으로 알려졌던 도시이기도 하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후원을 받은 남부베트남의 수도였던 곳이다.

3) 지리적 특징

2,098.7km² (전체 국토 33,211.6만 km²)로 베트남 전체 면적의 약 6.32% 정도이다. 북부지역 출신 사람들은 근면 형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호치민 주석 등 베트남 혁명가의 대부분이 북부 출신인 반면, 남부지역의 사람들은 풍부한 농산물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아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며 자유 분명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

4) 기후¹⁵

베트남 남부지방은 열대몬순 지역으로 기온은 최저 25℃, 최고 40℃정도이다. 계절풍의 영향으로 우기는 5~10월, 건기는 11~4월 사이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2,000mm 내외 이다. 현 사회주의 집단 지도 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있어, 간혹 홍수 범람으로 인해 중남부 지방이 크게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도시지역은 자연재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이다.

5) 인구¹⁶

호치민시 공식 인구는 5백5십만 명이고 비공식 인구는 8백만 명으로 전체 베트남 인구 7천 8백 6만 명중 약 7.046%(공식 인구 기준)가 호치민시에 거주한다.

6) 행정적 상황

¹⁵ 주 호치민 영사관, 2007년 10월 19일 제공 자료

¹⁶ 주 호치민 영사관 2007년 10월 19일 제공 자료

호치민 시는 베트남 최대의 도시로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이다. 하노이가 베트남의 수도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뺀다면 호치민시가 실질적인 수도이다. 현재의 호치민 시는 2,098.7km²의 넓이로 서울의 3배 크기에 달하며, 12개의 도시구역(Quan, 군)과 6개의 외각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지나해에서 캄보디아 국경에 이른다.

호치민 시 도시지역은 1구역(Quan 1), 2구역 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구역인 사이공을 포함한 1,3구역이 시내 중심가이며 5구역인 찰런(Cholon)은 차이나타운을 형성한다. 엄밀히 말해 현재 사이공은 1구역에 국한된 지역이지만 아직도 호치민 시는 사이공이란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

남부 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Saigon)은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북부의 베트남해방군에 의해 사회주의로 통일된 이후 도시명칭이 호치민 시(Than Pho Ho Chi Minh)로 변경되었다.

호치민은 1~6세기 당시 푸난 왕조에 속해 있었으며, 앙코르를 건설한 크메르 왕조의 일부로 편입되기도 했으나 17세기부터 응웬 왕조의 수도가 되었다.

프랑스의 식민지배(프랑스의 사이공 점령 1859년)하에서도 코친차이나의 수도로 인도차이나의 중요도시가 됐으며, 독립 후 분단된 베트남의 남부 수도(1955년)이기도 했었다.

7) 정치적 상황¹⁷

(1) 제10차 공산당 전당대회

5년마다 열리는 제10차 공산당전당대회가 2006년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3백 10만 명의 공산당원을 대표한 1,176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정치보고서, 2006년-2010년 경제, 사회발전 방향과 임무, 당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 당 조례의 보충과 수정안들을 통과시켰다. 당대회에서 통과된 이들 문건들은 당과 전 국민의 지혜와 의지의 결정체로서 과거 20년 동안 도이머이 정책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현 단계에서 도이머이 정책과 노선을 완성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결심을 담고 있다. 당대회는 당의 중대한 결심을 천명하였는바 앞으로 수년 동안 당지도부,

¹⁷ 이 항목은 2007년 1월 1일자 베트남의 유력한 경제 신문인 베트남경제시보(Thai Bao Kinh Te Viet Nam)에서 보도한 2006년 베트남에서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면의 10대 사건들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전국민, 전군은 분투하여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고양하고 전 민족의 힘을 발휘하여 도이머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베트남이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 2020년 현대공업국가가 되기 위한 기초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2) 반 부정 부패기구의 설립

2006년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쟁에서 당과 정부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한 해로 크게 기록될 것이다. 지난 9월 1일 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반 부정부패중앙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0월 31일에는 중앙 감사원에 반 부정부패국(局)이 설치되었다. 또한 11월 13일에는公安부에 반 부정부패 경찰국이 설치되었다. 12월 27일에 열린 연말 각료회의에서 베트남 수상은 2007년 전국의 각 성도(省都)와 중앙직속 시(市)에 반 부정부패지도부를 설치하자는 각료들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중앙 감사원의 사이트에 올라온 여론조사에서 12월 22일까지 53.1%에 달하는 사람들이 2006년도 베트남 사회에서 가장 큰 부정사건으로 외국원조자금을 유용한 PMU18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17개 기관, 단체들과 4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 사건과 연유되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응엔비엘띠엔(Nguyen Viet Tien) 교통운수부 차관을 비롯한 수많은 담당 공무원들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원은 경제, 사회분야에 대해 25회의 감사를 실시했으며 7조 동과 1,000만 불에 달하는 금액의 부정지출을 적발했다.

(3) WTO 가입과 미국과 PNTR의 통과

11년간 쌍무 및 다자간의 회담 끝에 지난 2006년 11월 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베트남의 WTO가입을 의결하였다. 11월 28일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의 WTO 가입에 관한 의정서를 정식으로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11일부터 베트남은 WTO의 150번째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베트남의 WTO가입은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 그리고 기타 국제경제기구 가입과 대외개방노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 경제발전을 위한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로 보여진다. 이제 베트남은 미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과 당당하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국이 되었다. 미국정부의 베트남과의 항구적인 정상적인 무역거래규제(PNTR)에 대한 미의회의 통과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경제, 무역, 투자 등의 여러 면에서 두 나라간의 쌍무적인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미, 베트남 두 나라는 WTO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서로 시행할 것이 기대된다.

(4) 아세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베트남은 21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최고지도자들이 모인 제14차 APEC 회담을 2006년 11월 18,19일 이틀 동안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하여 성공리에 끝마쳤다. 이번 APEC 회담의 베트남 개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협력 무대에서 베트남의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대외적인 관계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베트남의 국제 무대에서의 정치, 사회적인 역할을 넓히는 역할 밖에도 실제로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거둔 경제면에서 거두어들이는 효과는 대단하다. APEC 해를 맞아 12개국의 국가원수, 17개국의 수상과 부수상, 12개국의 국회 주석, 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한 각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수 차례에 걸쳐 베트남 정치지도자들과의 단독회담을 가졌으며 수천 명에 달하는 세계 최상급의 기업인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베트남이 충분한 잠재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를 위한 확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외국회사들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와 기타 상호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을 논의하였다. 2006년은 베트남의 당과 정부 고위지도자들이 세계각국을 방문함으로써 활발한 대외 외교를 벌인 한 해이기도 하다. 특히 금년에 아시아 여러 국가가 베트남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추천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반부정부패국 설치, WTO 가입과 미국과 PNTR의 통과, 아세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담개최 등으로 대표되는 베트남의 경제적, 정치적 개방과 변화는 복음의 개방과 접근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베트남 산업 현황

1. 베트남 경제와 산업

1) 베트남 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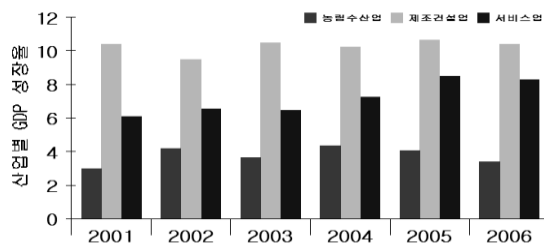
베트남의 경제는 국제적 헤게모니의 변화를 통해 개혁의 방향이 진행되어 왔다. 80년대 중반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등을 통한 동서냉전의 붕괴는 세계경제의 구조조정을 초래했고 베트남도 세계적인 경제질서에 부합하여 경제협력 체제의 모습을 달리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베트남도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급격한 시장경제 정책으로 전환해 왔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들어서는 매년 7~8%대의 꾸준한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 등으로 중국과 함께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국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2007년 WTO가입으로 그 동안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어 있던 부문까지도 투자의 문이 서서히 열림에 따라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베트남은 아직도 낙후된 사회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경제성장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중심으로 인프라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서방 선진국들과 대한민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베트남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69% 증가한 U\$203억을 기록하였다. 또한 간접투자자본의 경우 U\$53억, ODA자본이 U\$54억, 그리고 해외 베트남교포의 국내송금이 U\$80억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베트남 경제에 유입속도가 매우 빨라진 상태이다.¹⁸ 이와 같이 베트남 경제개혁의 주 방향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대외관계에서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서방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및 자본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 시장경제에 접목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개혁추진은 베트남에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여 시장경제

¹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동욱 하노이무역관 작성자료), www.kotra.or.kr, (검색일: 2007년 12월)

질서의 접목과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의 과도한 증대, 무역 적자폭의 심화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는 사회적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 또는 직접투자의 형태로 가구, 봉제공장 운영과 같은 제조공장 중심의 사업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양상이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베트남의 산업구조가 점점 고도화 되어 가면서 농림수산업이나 1차 제조건설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업이나 첨단산업과 같은 산업으로 주축이 변하고 있고 정부가 외국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도 그러한 분야에 국한된다. 이외에도 고급기술관련 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법인세나 토지사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베트남 내 산업별 GDP성장률만 보더라도 산업고도화를 예측할 수 있다. 농수산업과 일반 제조업의 비율보다는 서비스산업 쪽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베트남 내 경제 분위기를 반영하여 최근 들어서는 IT산업분야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신개발 동력산업으로 IT산업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IT업체들이 계속해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하고 있다.



<그림 IV-1> 베트남의 산업별 발전추이¹⁹⁾

베트남의 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낙후된 1,2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더욱 급격한 발전을 거치면서 첨단산업과 노동력 중심의 1,2차 산업이 병행하며 발전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본 조사팀은 IT산업에 더욱 초점을 맞춰 산업현황 및 기업진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 다루기로 하겠다.

2) 베트남 내 외국 기업의 상황

¹⁹⁾ 베트남 통계청 www.gso.gov.vn, (검정) 2007년 1월

(1) 적용 법률

‘사회주의 법치국가’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베트남도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의 법률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이 부족하고 국가의 법적 제재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화된 법률들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르는 많은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를 위한 법률정비의 지속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법은 우선 민법적으로는 프랑스의 영향이 크고 헌법의 경우는 국민사회주의 헌법의 개념이다. 이것은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의 그것과는 구분이 된다. 또한 IT 관련법은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토지 관련법은 중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법 사이의 충돌이 많은 실정이다.²⁰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조금 다른 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토지의 경우 합법적으로 구입한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되지만 베트남의 토지는 소유가 아닌 사용권만을 주장 할 수 있다. 이는 베트남 토지법에 전 토지는 국가에 영속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률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현지 기업인들이 불합리하게 국가에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당한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 보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²¹

최근에는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IT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기에 베트남 정부에서는 IT산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IT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특혜를 준 분야로는 신기술 산업이 있다. 기존에는 사업 투자 허가를 낼 때 회사를 세워 상장까지 하기 위해서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야 하고 이를 위해 상장 기준²²을 해야 하나, 신기술 산업 분야에는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투자 허가를 내어 준다. 즉, 신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신기술 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 우대 산업으로 지정되어 토지 임대, 법인세 인하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IT 산업 장려를 위한 국가의 또 하나의 정책으로 IT특별 단지를 만들어 세금혜택과 투자환경에 관련된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다.

²⁰ **헌법(헌법)법률연구보고서(헌법)연구부지부**

²¹ 한승현,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련법 정리”, 「코창 조찬 포럼 강의자료 모음집」, (호치민: KOCHAM, 2005)

²² 증권 거래소가 상장시킬 주식이나 채권을 고르는 일정한 심사 기준을 의미

(2) 성공 사례

① Case 1: LG 드봉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소비자가 한번 사용하게 되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시장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품목이다. 최근 베트남 특히, 호지민시의 젊은 여성들은 화장품 사용 시, 과거 저가의 구매 성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이는 자연스럽게 외국브랜드에 대한 구매로 연결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외국산 브랜드 화장품으로는 랑콤, 레블롱, 샤넬, 시세이도 및 한국 LG의 드봉(Debon) 등이 있다. 드봉 화장품은 1998년 초부터 베트남 시장에 선보인 이래 1년 만에 외국브랜드 중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드봉이 베트남에서 성공하고 있는 요인은 LG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브랜드 화장품의 경우 대부분 베트남 업체와 에이전트 계약 체결 및 단지 숍(shop)을 통한 판매에만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LG는 베트남 최초로 현지 판매회사를 설립, 홍보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클레임 발생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여타 외국산 브랜드 화장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LG는 1998년 3월 베트남에 판매회사를 설립한 이후 베트남 소비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시도했다. 우선 후발 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다각적인 홍보전략에 주력했다. LG는 베트남에서 드봉 화장품의 판매를 시작함과 동시에 미스베트남선발대회를 공식 후원함으로써 베트남 젊은 여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와 동시에 가두 무료 메이크업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최초의 외국 브랜드라는 인상을 깊이 남겼다. 또한 베트남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방문 세일즈 방식을 도입하여 가정을 방문, 직접 메이크업을 지도한 후 판매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분기별 1회 메이크업 잡지를 발행하여 무료 배포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구사하여 베트남 여성들의 뇌리에 드봉이라는 이름을 각인 시킬 수 있었다. 가격 결정 시 고가정책을 구사하여 고급 브랜드이미지를 창출한 것 또한 성공 비결 중 하나이다. L사는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고급 외국산화장품의 판매가격과 거의 동일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드봉 화장품이 랑콤, 시세이도, 레브롱 등 외국산 유명브랜드와 비추어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② Case 2: 미원

미원은 원료수급이 용이해 생산거점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8,000만 인구의 엄청난 잠재수요가 있는 베트남에 1994년 미원 베트남을 설립했다. 투자허가를 받을 당시 베트남에는 이미 일본의 ‘아지노모토(Ajinomoto)’, ‘아원(A-one)’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태였으나, 1995년 10월 공장 준공과 함께 현지모텔을 통한 브랜드 홍보와 한류 열풍이 조화되면서 미원의 인기는 베트남시장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공장은 사업확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설비를 증설, 대형공장으로 거듭났고, 생산품목도 조미료 외에 국물용 복합조미료 ‘뭇까인’(1998), 튀김가루 ‘뭇찌엔’(2002), 칠리소스(2002), 빵가루(2003), 간장(2004) 등으로 확대, 베트남 최대 종합식품회사로 성장했다. 미원 베트남은 이러한 노력으로 공장설립 이후 지금까지 13년째 흑자를 기록, 국내 식품 산업의 세계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③ Case 3: 포스리라마(Poslilama)

포스리라마(Poslilama)는 포스코건설이 동남아 건설시장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건설업체인 리라마(Lilama)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지분: 포스코건설 60%, Lilama 30%, 포스틸 10%)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치민으로부터 60km 떨어진 동나이성 룡탄지역에 위치한 포스리라마는 총 투자비 2,120만불, 공장부지 2만 4,124평, 근무인원 150명 규모로 1995년 6월에 설립됐다. 1996년 철구조물 연산 1만 5000톤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고, 이후 철골, 배관, 탱크 등 다양한 40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법인이 설립된 지 불과 4년만인 1999년 ISO9001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철구조물 제작 외에도 건축, 기계설치 등 그 영업분야를 확대하여 2001년 이후 수주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이 중화학 공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포스리 라마는 포스코건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추엔진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④ Case 4: S폰

S폰은 SK텔레콤과 LG전자, 동아일렉콤 등이 합자 설립한 베트남 현지법인인 SLD텔레콤이 서비스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름으로 상용서비스 1년 2개월만인 지난 9월 10만 가입자 유치를 달성했다. 베트남은 이동통신 보급률이

전체인구의 5.1%로 420만 명에 불과해 제3의 후발사업자인 S폰이 1년 2개월만에 10만 가입자를 돌파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다. 전체 인구 8200만명인 베트남은 유선전화 가입자도 약 500만 정도로 열악하다. SK텔레콤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험을 현지에서 그대로 살렸다. 국영기업인 1, 2위 업체들이 할 수 없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CDMA만이 가능한 각종 부가 서비스를 통해 베트남 20~30대에게 다가갔다. 10초 단위 과금, 컬러링 서비스, 단말기 할부제 및 대여폰 등이 베트남에서 S폰이 처음 선보인 마케팅과 서비스들이다.

⑤ Case 5: 현대 정보기술

현대정보기술은 금융IT에서 시작된 베트남 IT서비스 시장 공략을 SOC, 전자정부 등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는 전략 하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뒤에는 연 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IT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있다.

베트남은 이제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IT서비스 시장은 정부 및 금융권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전자정부, 금융, SOC,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IT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 IT서비스 시장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기업과, 베트남 현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인도, 싱가포르, 현대정보기술 등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현지 진출이 늦었지만 IT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한일 월드컵 등으로 소개된 `IT코리아'의 이미지 등으로 한국과 한국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현지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현대정보기술은 금융IT 정보화 시장에서 기술력과 수행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국내 기업 중 베트남 시장에 가장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실패사례

G사는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 특성상 베트남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해 현지에 슬리퍼를 생산, 100% 수출하는 단독 투자기업을 설립했다. 호치민시에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호치민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빈증성 송베에 연면적 2,500m² 규모의 공장 건물을 처음부터 직접 신축했다. 공장이 소재한 지역은 공단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빈증성 정부로부터 5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했다. 외국인 투자수요가 아무래도 호치민시보다 적은 빈증성 정부는 투자유치에 열의를

보였으며, 투자허가서 발급 등 제반 일 처리에 있어서도 협조적이었다. 굳이 일반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공장 소재지역이 단순노동력 고용상에 별다른 애로가 없었고, 공단 내 입주 시 동종 업종간 인력 스카우트 등에 따른 임금경쟁 등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공장을 본격 가동한 후 연간 생산량은 슬리퍼 60만 켤 정도를 전량을 유럽지역에 수출했다. 그러나, G사는 공장가동 만 2년여 만에 사업을 중단하고 공장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4) 실패 분석 및 보완점

사업 포기의 직접적인 이유는 수출단가 면에서 로컬기업과의 경쟁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저임 노동력이 아무리 풍부하다 해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정부가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 줘야 하는 등 현지 로컬 기업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슬리퍼와 같이 높은 기술력이 따르지 않는 제품의 경우는 로컬기업들이 디자인만 약간 바꾸어 비슷한 제품을 저가에 생산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G사의 경우 제품 특성상 고정적으로 주문을 하는 빅 바이어가 없는 상태에서 로컬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한 후 G사의 기존 바이어와 경쟁하면 대책없이 빼앗기기 일쑤였다.

이 같은 사유로 공장가동을 포기하게 된 G사 사장은 기술력이 없는 저가품목의 경우 현지의 저임 인건비만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는 현지 로컬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지기업들이 당분간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품목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2. 베트남의 분야별 IT 관련 산업 현황

1) 개요

베트남 정부의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IT산업의 수준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1990년대 초반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매년 20~30%의 고성장을 이루는

있는 핵심산업이다.²³ 앞서 언급 했던 바와 같이 베트남은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며 산업별 분야에서도 1,2차 산업 기반밖에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첨단 IT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의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차후 관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 보급률의 경우 지난 4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매년 연평균 20%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²⁴ 물론 분배의 편중이 대부분 호치민과 하노이 같은 도시중심이고, 사용 연령대가 중고등 학생에 치우쳐져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골 도서 지역까지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에 고루 분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IT산업은 베트남 경제성장을 통한 개인소득증대와 맞물려 크게 성장하고 있다. 수익성 창출 분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면서 외국계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이크로 소프트사나 IDG와 같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직접 투자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흐름에 부응하여 베트남 정부는 소프트웨어 단지 조성이나 IT기업 법인세를 인하 등의 혜택으로 다양한 부분에서의 IT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에 중심이 되던 컴퓨터 조립, 유통, 휴대폰 조립과 같은 기본적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로컬 포털 사이트, 초고속 인터넷 사업 등 그 사업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산업현황에 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 본 조사 팀은 IT관련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한다. 1.PC 하드웨어 유통/조립/제조 2. 포털 사이트 3. 게임 4. 인터넷 공급 서비스 5. 소프트웨어 6. IT 교육. 이같이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IT관련 산업의 범위가 과생되는 모든 산업을 통틀다면 무한정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분야로 한정한다는 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분류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서이다. 다음에서는 각 항목별로 베트남 내 산업 현황과 비즈니스 선교의 가능성을 다루도록 하겠다.

2) 분야

(1) PC 하드웨어 유통/조립/제조

²³ 장종범 (아이스피어 소프트웨어 부사장, 디지털타임스) 인터뷰 자료

²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검색일: 2007년 12월)

베트남의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IT시장의 80%를 점유한다. 실제로, 하드웨어 분야의 수입 중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액은 훨씬 많은 편이다.²⁵

<표 IV-1> IT분야별 산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S/W	H/W	S/W	H/W	S/W	H/W	S/W	H/W	S/W	H/W
생산액	60	280	75	325	100	410	140	545	175	760
증가율	12	12	25	16	33	26	40	33	25	39.6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2006).

표를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드웨어 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장이 하드웨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까닭은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는 베트남이 전세계에서 1위이다.²⁶

하드웨어는 대부분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생산하므로 매출의 대부분은 외국 기업에 의해 창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제품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²⁷

사용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중고생·대학생으로 전체 시장의 60~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²⁸ 보통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은 베트남 영세조립업자가 해외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단순 조립하여 생산하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고, 대기업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중·고가의 해외 브랜드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한다.²⁹ 조립 저가 PC는 일반적인 가격이 200~300\$이고 기종은 펜티엄 3가 대부분이며, 총 데스크탑 컴퓨터 시장의 70%를 차지한다.³⁰ 한편, 나머지 22%는 FPT, CMS CO., G6 등 베트남

²⁵ 주한 베트남 대사관, 2005년 10월 13일 제공 자료

²⁶ Vietnam Associa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VAIP) "ICT Index 2006" (베트남: VAIP, 2006년)

²⁷ 반용호 (Losco, 디렉터) 2008년 1월 11일 인터뷰 자료

²⁸ Op.cit.

²⁹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베트남 IT시장현황 및 진출방안"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04년 1월)

³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검색일: 2007년 12월)

유명브랜드 제품을 차지하고 그 외에는 외국 유명브랜드 제품이다.³¹ (2004년 기준)

대부분의 컴퓨터 소비는 대도시 지역³²에 집중되어있고,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전체의 80%정도가 소비된다. 지난 4년간 베트남의 컴퓨터 소비량 증가율은 연평균 20% 수준이며, 100명당 1명 꼴로 PC를 소유하고 있다.³³

(2) 포털 사이트

베트남 IT분야에서 포털사이트의 위치는 한국, 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큰 입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포털사이트와 관련한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터넷 자체의 접속률이 높아야 한다.³⁴ 그러기 위해서는 초고속 통신망의 기반시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결제과금방식이 전자상거래나 계좌이체와 같이 사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런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결제과금방식이 전자금융화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인터넷 유저들의 인터넷 사용 습관이 포털 사이트 위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유저는 인터넷을 처음 시작할 때, 주로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관문처럼 이용하지만, 베트남의 포털 사이트는 제공하는 정보도 다양하지 못할뿐더러 서비스 기술력도 뛰어나지 못해서 유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베트남 내의 자체 포털 사이트가 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표 IV-2> 베트남 주요 포털 사이트 순위 (Alexa³⁵ 08.01.25.)

순위	사이트 이름
1	yahoo.com (Yahoo!)
2	google.com.vn (Google.com.vn)
3	vnexpress.net (VnExpress)

³¹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검색일: 2007년 12월)

³² 베트남 대도시로는 북부지방에 하노이(Hanoi), 하이퐁(Hai Phong), 쩡닌(Quang Ninh)이 있고, 중부지방에 다낭(Danang), 남부지방에 호치민(Ho Chi Minh), 꾀터(Can Tho) 등이 있다.

³³ VAIP가 발표한 "ICT Index 2006"에 의하면 베트남 총 가구의 13.7%가 PC를 보유하고 있다.

³⁴ 위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말에 베트남 총 가구의 6.5%가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³⁵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 순위 기관

4	dantri.com.vn (Bao Khuyen hoc & Dan tri Online)
5	zing.vn (Zing.vn)
6	24h.com.vn (24H.com.vn)
7	google.com (Google)

또한 베트남이 공산국가이기에, 포털 사이트를 포함한 언론통제가 심한 점 역시 베트남 자체 포털 사이트가 성공하지 못한 까닭이다.

베트남의 포털 사이트는 한국의 그것과 형태가 많이 다르다. 베트남 포털 사이트는 한국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검색엔진,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게임, 음악, 인터넷 쇼핑물 등이 있다. 서서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UCC’,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용상황이 저조하다. 오히려 베트남 유저들은 인터넷을 통해 단순히 게임이나 메신저 또는 채팅 서비스 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베트남 유저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뉴스이다. 이것은 검색엔진을 사용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우리 나라 유저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가 뉴스인 만큼, 통합뉴스 사이트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베트남은 언론의 통제가 심하므로, 대부분의 통합뉴스 사이트를 정부에서 관할한다. 한편, 민영기업이 통합뉴스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정치·사회 부분의 기사를 실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UCC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매출은 없다. 간접적으로 유저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파생효과를 기대할 뿐 시장성은 없다. 오히려, 포털 사이트는 대부분의 매출을 배너광고를 통해 올린다. 배너 광고는 현재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광고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사이트가 적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베트남의 IT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초기에는 IT시장에서 PC판매 등 하드웨어 산업이 호황을 누렸고, 그 다음에 서버판매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었다. 그 후에, 웹 디자인이나 웹 프로그래밍 학원들이 호황을 누리고 포털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그 중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았다. 결국, 마지막에 IT시장에서 가장 수익성이 있는 산업은 포털 사이트이다. 베트남 역시 IT산업의 진행과정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과정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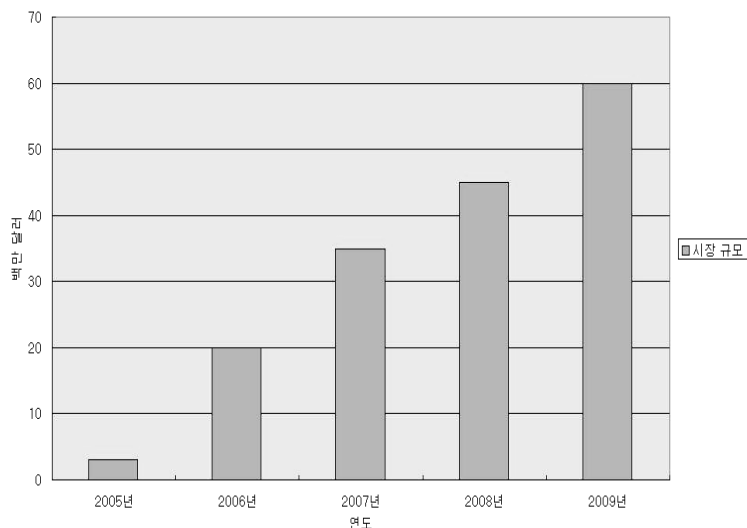
(3) 게임

베트남에 온라인 게임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한국의 ‘Webzen’사의 온라인 게임인 ‘MU’³⁶가 2003년 소개된 것인데 ‘MU’가 소개되자마자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베트남 최대의 게임업체인 ‘VASC Software and Media Company’가 ‘MU’를 소개하면서 독점체제였으나 이후 ‘FPT’, ‘VDC’ 등 대형 국영업체와 ‘VinaGame’³⁷으로 대표되는 민영업체가 게임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2004년부터 온라인 게임 시장에 진입한 ‘VDC(Vietnam Data Communications)’사는 베트남 온라인 게임 시장은 가까운 시일 내 많은 수익을 내는 황금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IT 산업 성장률이 연 20%를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소비자층인 젊은 층의 인구비중이 높은 베트남은 온라인게임에서도 유망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VinaGame’의 에드워드 황 과장은 인구의 70%가 35세 이하로 젊은 층이 많아 게임 유저가 많아 수익성이 있고 2004년에 ADSL서비스 시작되었고 2005년에 온라인 게임 상용화되어 게임 시장이 더욱 더 확대 될 전망이 아주 밝다고 피력했다. 또한 베트남은 인도나 중국에 비해 인구수는 뒤떨어지지만, 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 인구 수치가 높고 GDP 1,000달러에 비해 소비성향이 크다는 점도 베트남의 게임 시장이 발전 할 수 있는 요인이라 분석했다.

³⁶ MU온라인은 2002년 2D 온라인게임이 주류던 시기에 국내 최초로 등장한 Full 3D MMORPG로 ‘뮤’란 가상의 대륙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게임이다.

³⁷ VinaGame은 2004년에 베트남에서 설립한 Online Game publishing & e-Commerce 회사이다. 비나게임은 베트남의 첫번째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회사이며 동시에 베트남 1위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체가 되었다. 비나게임의 주요 게임인 소드맨 온라인과 붐 온라인 등으로 온라인 시장 형성과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림 IV-2> 베트남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

현재 베트남의 게임시장 규모는 2008년 3,500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고 2009년에는 4,500만~5,000만 달러로 예상된다. 올해 시장 규모만 따져도 작년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다. 하지만 성장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³⁸

인터넷 인구는 20~30대의 약 20%인 1,600만명 정도다. 게임 유저는 이 중 3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009년에는 인터넷 인구가 2,300만명으로 늘어나고 게이머는 50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베트남 온라인게임 업계의 기대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선호되는 온라인 게임은 ‘VinaGame’이 중국의 ‘Kingsoft’³⁹에서 게임라이센스를 수입해서 베트남서버를 운영하는 Swordsman Online이란 온라인 게임이다. 이 밖에도 한국의 게임인 ‘오디션’이나 ‘BnB’ 등도 정식계약과 함께 도입되어 선호도 2,3위의 게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VinaGmae’의 에드워드 황 과장은 베트남 게임 유저들은 조작이 복잡한 게임은 못하는 편이고 판타지에 대한 익숙함이 별로 없는 편이라 했다. 그래서 RPG 게임의 선호도가 강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단순한 게임이 유행한다고 하였다.

³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원준 하노이무역관 작성자료), www.kotra.or.kr, (검색일: 2007년 12월)

³⁹ Kingsoft 중국의 제일 큰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킹소프트는 1988년에 창립하며 빠르게 발전하여 2000명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가진 소프트웨어 센터가 되었다.

또한 컴퓨터 사양이 낮고 인터넷 속도가 느려 높은 사양의 게임은 상용화 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현재 베트남 온라인게임 시장은 VinaGame의 독주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VinaGame’은 베트남에서 온라인 게임 1위 업체로 총 6개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데 베트남 게임 선호도 순위 1,3,4위의 게임을 제공 하고 있다. 연 매출도 450억원으로 2위와의 격차도 상당히 큰 편이다. 주요 수입원은 선불결제용 게임카드 판매로 온라인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된 결제 방법이다. 게임카드를 생산하는 것도 타 회사에 아웃소싱을 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VinaGame’이 독점하고 있다. 또한 이 카드판매는 ‘VinaGame’매출 기준 2/3를 차지 하는 효자상품이다. ‘VinaGame’이 베트남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1위를 지킨 이유는 온라인 게임 산업은 B to C 사업⁴⁰이기에 유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VinaGame’은 유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발전시켰기 때문이라 에드워드 황은 설명했다.

해외 게임 제작 업체들은 현지에서 직접 게임을 유통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해외 게임들이 베트남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 회사와 합작회사를 세우거나 현지 회사가 해외 게임 제작 업체로부터 게임라이센스를 수입해서 베트남 서버를 운영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방법이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게임회사들은 아직 출시된 자체 개발된 게임이 없고 해외로부터 게임라이센스를 수입해서 서버를 유통하는 ‘Reseller’의 성격이 강하다. 만약 외국계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경우 각 게임마다 정부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위직과의 인맥이 탄탄하지 않은 이상 사업을 제대로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베트남의 온라인 게임 시장은 아직 시장규모가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사업자수가 많지 않아 시장선점의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잠재력으로 평가해 볼 때 온라인게임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국 온라인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 시장으로서만 아니라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프트웨어 인력의 아웃소싱 시장으로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저작권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불법 복제가 많다는 단점 때문에 소프트웨어

⁴⁰ business to consumer의 약자로 B2C라고도 표기한다.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비자나 기업의 인증, 카드 회사·은행과의 결제가 시스템상 중요하다.

시장으로의 접근은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제 성장율은 매우 높으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인터넷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게임 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4) 인터넷 공급 서비스

베트남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것은 1997년이다. 하지만 민간영역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활동은 허가를 받지 못하여 더딘 발전을 보이다 2002년 이후 인터넷 서비스 공급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 되고 사용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현재는 서비스 공급 가격 인하 및 ADSL 등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공급과 더불어 인터넷 보급 속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인터넷 사용자 수는 16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5년 전인 2002년도 사용자 수의 15배 규모이다.⁴¹

<표 IV-3> 연도별 인터넷 이용자 수 현황⁴²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이용자 수 (백만 명)	1	1.5	3.1	6.3	10.7	14.5

<표 IV-4> 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률⁴³

연도	2003	2004	2005	2006
인터넷 사용률 (단위 : %)	3.8	7.7	12.9	17.5

인터넷 가입자도 400만 명을 넘었고 브로드밴드(Broadband:ADSL VDSL 전용선(Leased Line)) 가입자수도 60만 명으로 브로드밴드의 보급 및 사용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전체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45%가 하노이시, 39%가 호치민시 거주자이며 나머지 16%가 그 외 기타지역으로 인터넷 사용과 보급에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 IV-5>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현황⁴⁴

⁴¹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근형 하노이무역관 작성자료), www.kotra.or.kr, (검색일: 2007년 12월)

⁴² 베트남 인터넷 센터 (Vietnam Internet Center), www.vnnic.net.vn, (검색일: 2007년 12월)

⁴³ 베트남 인터넷 센터 (Vietnam Internet Center), www.vnnic.net.vn, (검색일: 2007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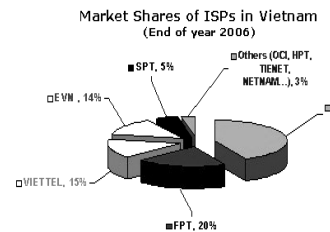
⁴⁴ 베트남 인터넷 센터 (Vietnam Internet Center), www.vnnic.net.vn, (검색일: 2007년 12월)

연도	2003	2004	2005	2006.11
가입자 수 (가구 수)	9180	5 만 2705	21 만 24	45 만 3666

연령별로는 31세 이상 50세 미만의 연령대가 45.9%로 주 사용자이고 30세 이하 연령대도 사용률이 44.4%에 달한다.

연령	사용률 (%)
15~20 세	7.8
21~30 세	36.6
31~50 세	45.9
50 세 이상	9.7

베트남의 인터넷 서비스(ISP) 업체는 지금 약 10개사 영업 중이다. 총 16개사가 ISP 사업권을 득했으며 이중 10개사가 공식적으로 영업을 활동하고 있다.⁴⁶



<그림 IV-3> 베트남 ISP 기업별 점유율 (2006년)

현 베트남은 연간 8%의 고속 성장 국가인 베트남에서 인터넷 수요는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베트남 투자 법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은 조건부 투자허가 대상으로 100%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만이 가능하다. 실례로 사이공 POSTEL이라는 회사는, SK 와 합작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⁴⁵ 베트남 소프트웨어, VietnamSoftware.com, (검색일: 2007년 12월)

⁴⁶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안유석 호치민무역관 작성자료), www.kotra.or.kr, (검색일: 2007년 12월)

베트남은 인터넷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인터넷 사용인구도 총인구 8800만 명 중 35%가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확대가 가정으로 이어지면서 일반 가정에서의 컴퓨터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컴퓨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그 수요가 더 많아져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는 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표 IV-7> 인터넷 관련 주요 지표⁴⁷

주요 지표	수치
인터넷 사용률	18.17%
총 인터넷 채널 Bandwidth	7076Mbps
총 'vn'도메인 수	3 만 7869
총 IP Address	186 만 2400
총 Broadband 사용자 수	60 만 1708 명

다만 문제는 감소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비싼 인터넷 가격이다. 가정용 ADSL은 사용료가 600만 VND(약 한화 36만원) 정도로 월 평균 임금을 훨씬 상회한다. 기업용 고속인터넷 역시 비싼 사용료가 문제인데 기업 전용선은 1Mbyte 사용하는 경비가 2500 달러 정도로 비싸다. 실제로 POSCO의 경우는 4Mbyte를 쓰는데 월 3600만원을 전용선 비용으로 쓴다고 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특정 지역의 개발권을 일부 업체에 넘겨주는 식이어서 그 지역에선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독점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베트남 인터넷 시장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5) 소프트웨어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크다. 베트남의 정부 행정에서 일상의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IT 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소프트웨어협회(VINASA)가 발표한 2006년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베트남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3억 달러, 수출액은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인 커니⁴⁸가 최근

⁴⁷ Ministry of Post and Telecom 제공 자료, 2006년 기준

⁴⁸ A.T. Kearney, 미국의 비즈니스 경영 컨설팅 업체

25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프트웨어산업 국가' 20위에, 일본IT서비스산업협회가 선정한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하였다.⁴⁹

이와 같이 베트남은 신흥 소프트웨어 강국의 면모를 갖추나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도 존재한다. 그 중의 하나가 저작권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지적 재산권 보호법은 법 조항들이 다 존재하나 시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허의 경우는 보호가 잘 되고 있고, 상표권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나, 저작권법은 전혀 시행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⁵⁰이 15일 전 세계 동시에 발표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88%로 나타났다.⁵¹ 실제로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불법 복제율은 거의 99%이라고 한다.⁵²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음반, 영상, 서적 등이 다 불법 복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파는 제품들도 거의 대부분 복제품이라 할 수 있다. 서점에 있는 IT 관련 도서들조차 겉 표지만 외국의 유명 서적을 베껴 프린트하고, 내용은 복사해 제본해 놓은 수준의 것들이었다. 불법 복제한 음반 등을 거리의 좌판에 놓고 파는 경우도 많다. 베트남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식 딜러가 없어 소프트웨어를 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 뿐 아니라 베트남 내 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비교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10여 개의 소프트웨어 단지를 조성하였다. 이들 소프트웨어 단지에 입주한 업체에는 면세 등의 각종 지원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호치민 시내와 인접한 팡중 소프트웨어시티(QTSC)의 경우 단지 내에 51개의 기업에 약 1500 여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있다. 팡중 소프트웨어 시티와 사이공 소프트웨어 파크는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⁴⁹ 아시아경제신문, “베트남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세 무섭다”(2007년 2월 4일)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였다.

⁵⁰ Business Software Alliance, 소프트웨어 관리, 저작권 보호, 사이버 보안, 무역,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이슈들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세계 80개 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IT관련 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다.

⁵¹ 보안뉴스, “SW 불법복제율 낮아졌으나 피해는 증가”(2007년 5월 15일)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였다.

⁵² 조사설계에서 밝힌 IT 관련 기업들에서의 인터뷰 대상자 모두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이 거의 복제품이라고 하였다.

현재 베트남 우정통신부는 2006~10년 중 베트남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률은 35~40%로 유지,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 이 규모 중 50% 이상을 수출액으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수의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부문 집중 육성, 국내에서의 경험축적을 통한 해외부문으로의 수출확대,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개발의 기초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에 몇 가지 우대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이익 실현 후 4년 동안 면제하고,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수출세 또한 면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 외국인기업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경감하는 정책도 취하고 있어 베트남 내 여타 수출가공지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비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⁵³

또 다른 취약점으로는 베트남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정권의 특성상 인맥 중심의 정책, 나아가 돈으로 해결되는 행정은 IT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과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최근에 2000년~2005년 e-정부 5개년 사업이 정부 고위층의 부정부패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된 것은 베트남의 부정부패로 인해 IT 분야에서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커다란 예이다.⁵⁴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베트남 소프트웨어 산업은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내수 시장은 높은 불법 복제율로 인해 취약하여 베트남 소프트웨어 산업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보다 더 성장하려면 이러한 내수 시장의 취약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베트남 정부관련기관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정책들을 장애 없이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되어야 한다.

(6) IT 교육

⁵³ 손승호, “베트남 정보통신산업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수은해외경제」 7월호, p. 37 에서 제시된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⁵⁴ 아시아 경제신문, “베트남 IT 국가사업 부패로 붕괴위기”(2007년 9월 18일)에 의하면 2000년~2005년에 걸쳐 추진했던 e-정부 5개년 사업이 공무원들의 부패로 프로젝트 관련된 자금이 횡령되고 관련 정책이 거의 시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① 베트남의 IT 인력 현황

베트남에 인터넷이 도입된 1990년 말에는 베트남에서 IT 인력을 양성하던 기관이 7개 대학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대학, 전문학교, 민간교육기관 등을 합해 총 100여 개의 기관에서 연간 3,500~4,000명의 IT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대졸 IT 인력은 2005년 기준 38,000~4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⁵⁵ ‘민간 교육기관에는 외국계 IT 교육센터도 15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외국계 IT 교육센터의 규모는 향후 베트남 IT 인력 수요의 증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베트남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IT 전문 인력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T 관련 규제 완화, 정부 지원확대, 통신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⁵⁶

② 베트남 IT 인력 수준

학교 커리큘럼은 우리 나라와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다.⁵⁷ 그러나 이론 수업에 그치고 실습이 별로 없는 것이 약점이다. 교과서나 시중에 나오는 책들을 보아도 이론에 관한 설명은 많으나 예제나 사진들이 부족함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에서는 인력을 뽑을 때 경험을 가진 경력자를 선호하며, 외국인 인력도 선호한다. IT 업계에서는 특히 인도 출신의 인력들이 외국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12월에 개설되어 2008년 전반기에 첫 교육과정을 시작한 SK-SSU IT 교육 센터⁵⁸ 책임자를 인터뷰한 결과로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실습 위주의 교육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IT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목적은 보다 더 높은 보수와 좋은 근무 환경 조건을 찾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고 하였다. 베트남에는 이러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IT 교육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⁵⁵ Op. cit. p. 26

⁵⁶ 베트남플라자 편집부, 「이것이 베트남이다」 (서울: 와이미디어, 2007) p.119 에서 발췌하였다.

⁵⁷ 본 내용은 베트남 포털 사이트 INT Vision의 신원석 과장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록하였다.

⁵⁸ SK telecom과 송실대학교가 협력하여 베트남 호치민시에 설립한 무료 IT 교육센터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6개월 단위로 교육을 하며, 우수 졸업자 대상 한국 유학 기회 및 한국 IT 기업 취업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V. 베트남 IT 산업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

1. 베트남 내 비즈니스 선교의 방해요소

1) 사회주의체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사업가는 정부의 감시와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활동이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베트남의 현 상황 가운데 비즈니스 선교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복음전도는 불가능하며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될 경우 사업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베트남은 공안들의 악명 높은 부패로 유명하고 이들의 부정부패는 현 베트남 정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는 시스템 보다는 인맥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인맥 중심의 경영은 정경유착을 일으키고 R&D투자가 위축되게 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장기적인 경영계획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2) 자민족주의

베트남 정부는 또한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자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다. 베트남에서는 외국 기업의 직접적인 진출은 불가능 하고 자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진출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다. 또한 외국인들은 토지의 구입이 불가능 하고 현지인의 명의로 사용권을 임대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고 현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정부는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감하하면서 직접적인 토지소유와 회사설립을 허가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대기업에 국한 될 뿐 완전한 자율과 독립적 경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현지인과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인프라 부족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감시와 인맥중심의 경영이라는 한계점 외에도 개발도상국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인적, 기술적, 시스템 등의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 역시 베트남에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등에 업고 고속 성장을 해온 베트남은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집약 산업의 침체와 기술·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T시장의 경우 시장의 시작단계에서 시장 선점의 의의는 크지만 그만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전화선, 인터넷 선 등의 인프라 구축은 거대자본을 통한 국가 대상의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본으로는 참여가 어렵다. 때문에 베트남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IT 시장으로의 진입은 대체로 소규모 자본으로 접근하는 선교사업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4) 기타

베트남은 지금까지 값싼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개발계획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체제가 없고 정책의 인수인계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 인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곤혹을 겪기도 한다. IT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을 취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고 느린 의사결정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 발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오랜 기간 전쟁을 경험한 베트남인들은 자산을 타기관에 맡겨두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보관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거래규모가 매우 작다. 통장 구좌 개설이 20%도 채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거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나 서비스 사업을 통한 이윤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WTO가입 이후 정부가 조금씩 규제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S/W 분야에 대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S/W개발과 유통은 베트남에서 가장 시간이 필요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와 같이 법률 체제의 미비 및 인식 부족, 정부의 지원부족, 현금 중심의 거래구조 등의 한계들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접근법들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2. 베트남 IT 산업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의 가능성과 성공 사례

1) 가능성

(1) 시장 선점 가능성

앞서 기술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많은 전방개척 지역 중 기업하기에 제반 여건들이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지역'으로 분류된다⁵⁹. 1986년 경제개방 이후 베트남은 연 평균 8% 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그리고 다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은 이런 높은 경제 성장과 산업 형식의 변화와 함께 최근 IT분야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현 베트남 IT시장은 시장의 완숙기를 넘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섬유, 제조산업 등과는 다르게 시장의 시작 단계에서 완숙 단계에 이르는 성장기에 있다는 점과 시장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이제 막 시작 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선점이라는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베트남의 IT시장은 시장성 자체로도 상당한 성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IT산업은 통신, 게임, 전자상거래, 포털, 소프트웨어 등 모든 부분에서 최근에야 시장의 형성이 이루어 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아웃소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현 베트남의 경제성장

⁵⁹ 이종훈, "비즈니스 선교의 이론과 실제", 「전방개척선교저널」, Vol.15, (Mar/April 2008) p. 63

과정에서 기업들의 IT산업 투자와 진출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큰 자본 없이도 대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시장 점유율과 활발한 기업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급기술지원과 직원 대상 선교 등 선교로서의 비즈니스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이루어질 것이다.

(2) 한국과의 유사성

시장의 형성기에서 발전기로 접어들고 있는 베트남 시장은 과거 한국 시장의 형성과 발전 단계 과정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은 시장 변화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업에 매우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단순히 시장을 미리 경험하였다는 것을 넘어 베트남에서의 IT사업이 한국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또 한가지 이유는 베트남 국민들의 기질이 한국인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의 소비자들처럼 베트남의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에 비해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율이 높고 선각 수용자(early adopter)⁶⁰적인 기질이 강하다. 일례로 미국이나 유럽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이 전화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베트남의 소비자들은 휴대폰으로 음반 다운로드, 문자사용,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하고 있다. 통신분야에서만 아니라 게임분야에서도 베트남 소비자들은 한국과 같이 경쟁적인 게임을 즐기고 PC방을 이용한 게임사용 시간도 매우 높은 편이고 포털 사이트 역시 단순한 정보검색을 넘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드라마, 영화, 음반 시장을 넘어 한국식 아파트가 주목 받을 정도로 한국적인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한류열풍 이전에 문화적 기질이 비슷하기 때문으로도 보이며 이는 동일하게 IT산업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별히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한국선교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풍부한 노동력

베트남 IT시장의 높은 잠재성 가운데 한 가지는 현 베트남 인구의 80%가량이 20~30대를 이루는 풍부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IT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교육열이 높고 근면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인력의

⁶⁰ 남들보다 빨리,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써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부족은 시간 문제라고 현지 기업인⁶¹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후 베이비 붐 세대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자랐지만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사고가 유연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구매욕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기술인력의 개발과 함께 유연한 사고를 지닌 젊은 지식인층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들의 기업활동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총체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풍부한 인력시장과 국민성, 한국 시장과의 유사성과 경험은 베트남에서의 IT산업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에 진출에 밝은 전망을 보여준다.

2) 성공사례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복음 전파는 불가능 하다. 그래서 현지에 선교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복음 전파를 시도 하고 있다. 법무 법인 Logos는 영향력 있는 현지인 크리스천을 만들어 낸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 되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회사원들과 예배를 드린다. 물론 강요하지는 않으며 자율적으로 다른 회사원들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마다 일부 사무실을 오픈하여 목사님들과 직장인들을 초청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한 홀리클럽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성시화 운동⁶²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3. 베트남 IT 산업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제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비즈니스 선교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선교는 먼저 기업문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원 교육과 사내 기업문화를 형성함에 있어 정직과 사랑, 성실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선교를 위한 형식적 형태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건강한 기업이 요구된다. 특별히 본 조사는 IT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T 산업으로

⁶¹ Edward Hwang manager(Vina-game), 황병락 President(IDT CO.,LTD)

⁶² holy city 운동으로서 각각의 도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진출할 경우 이 분야의 종사자들, 즉 지식인층을 중점적으로 접촉하게 될 것이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대로 기독교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복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의 기업운영과 삶의 본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베트남은 인화를 중시한다. 일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말이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현지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기업운영은 불가능하다. 단기 이윤을 내지 못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축된 인적 인프라는 보다 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이끌 것이며 결국 사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인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가능케 함을 기억하고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IT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베트남의 경제 상황과 시장 상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선교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경제적인 부분 만 고려 하여 보면 분명 비즈니스 선교의 가능성이 보였지만 사회주의 체제라는 사회적 장벽은 아직까지 예측이 쉽지 않은 변수로 남아 있다. 이미 굴지의 기업들이 버젓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틈새 공략도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소자본으로 시작한 작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절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인맥이라는 도구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정직한 기업으로 남기가 힘든 이유이다. 전문인 선교나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 현지로 진출한 기업인들은 대부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정직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하듯 기업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는 아직까지도 문이 닫힌 베트남의 선교적 돌파를 위한 가장 좋은 매체가 될 것이며 베트남의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서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이원론적 사고를 버리고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업가이자 선교사로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선교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참고문헌>

- 부썬투이,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서울: 대원사: 2002)
- 베트남플라자 편집부, 「이것이 베트남이다」, (서울: 와이미디어: 2007)
- 「종족과 도시 선교저널 제 12호」, (서울: 종족과 도시 선교연구소: 2002)
- 「선교지역연구보고서 제2권 2호」, (포항: 한동대국제지역연구소: 2007)
- 「베트남 투데이 통권 39호」, (호치민: 베트남 투데이: 2007)
- 「베트남 투데이 통권 41호」, (호치민: 베트남 투데이: 2008)
- 「베트남 투자 핵심 가이드」, (서울: KOTRA: 2007)
- 호치민 한인 상공인 연합회 「코참 조찬 포럼 강의자료 모음집」, (호치민: KOCHAM: 2005)
- 호치민 한인 상공인 연합회 「코참 조찬 포럼 강의자료 모음집」, (호치민: KOCHAM: 2006)
- 「베트남 투자법령집」, (호치민: KOTRA 호치민 무역관: 2006)
- 이종훈, “비즈니스 선교의 이론과 실제”, 「전방개척선교저널 15호」, (서울: 선교타임즈: 2008), 63p